

국내 대학생 및 직장인의 세계영어 및 세계영어의 통역에 관한 태도 연구*

허지운
(이화여대)

1. 서론

영어는 공용어로서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더 이상 원어인 영어 구사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화자들도 필요에 따라 다양한 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으로 영어가 확산됨에 따라 각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언어적 맥락이 반영되며 영어는 지역별로 고유 특징을 띄는 다양한 지역별 영어로 발전하게 되었다. 카츠루(Kachru 1985)는 이를 ‘세계영어(World Englishes)’라는 개념으로 정리하였고, 영어가 제1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내부동심원(Inner Circle)’, 식민지 역사 혹은 다언어·다민족 환경 등의 영향으로 모국어나 제1언어 외에도 영어를 공식 언어 혹은 공용어로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18509).

사용하는 ‘외부동심원(Outer Circle)’, 제1언어 혹은 구성원들의 대표적 모국어만이 공용어로 확립되어 있지만 해외 교류, 교역 등의 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하는 ‘확장동심원(Expanding Circl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내부동심원은 흔히 원어민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외부동심원과 확장동심원은 비원어민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한국어를 유일한 공식 언어로 사용하면서 해외 교역 및 교류의 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어 확장 동심원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국민 대부분의 모국어도 아니고 공식 언어가 아님에도 영어는 한국에서 매우 중요한 언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어는 진학 및 취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교육이 시작될 정도로 영어교육열이 대단하다(김근혜, 홍순옥, 탁장환 2014: 97; 조혜영 2015: 33-34; Park 2011). 다만, 한국인들이 그동안 교육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해온 영어가 주로 원어민 영어,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영어라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한국 간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Ahn 2011: 699). 이처럼 특정 영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청취하면서 형성된 영어에 대한 태도는 다른 지역의 영어에 대한 태도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배어나오며 여러 가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촉발할 수 있다.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언어적 요소도 작용하지만, 이에 더해 언어에 대한 인식과 그에 의해 촉발되는 비언어적 요소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언어 태도에 대하여, 특히 국제교류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어인 영어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는 것은 원활한 해외교류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국제교류는 특히 통역이 많이 사용되는 영역이다. 영어 화자가 참여하는 국제교류에서 통역이 수행될 경우 통역사가 일차적으로 다양한 원어민 혹은 비원어민 화자의 영어를 청취하고 이를 한국어로 통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영어는 통역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며, 이 문제는 여러 연구를 통하여 제기된 바 있다(허지운 2013a/2013b; Albl-Mikasa 2010). 그러나 통역 회의의 참여자인 청자 또한 세계영어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역 회의의 참여자인 청자는 통역이 제공된다 하여도 순차통역 상황에서 또는 선택 여하에 따라 동시통역 상황에서 영어 발화를 직접 듣는 제 1 청자가 되기도 하고, 통역이 제

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하여 영어 화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참여자가 되기도 한다. 통역 중재를 거치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경우 청중은 통역 결과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가령, 통역사가 세계영어를 통역하는 과정에서 명료도 저하로 고충을 겪게 되어 통역 결과물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면 청중은 세계영어 발화로 촉발된 연쇄적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통역사가 아닌 일반 회의 참여자 집단이 가지는 세계영어에 대한 태도는 통역 회의 상황과도 연관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세계영어를 통역 중재 상황에서 접하게 될 경우 세계영어에 대한 태도에 따라 세계영어의 통역에 대한 태도도 좌우될 수 있다. 지금까지 통번역 연구에서는 통역사 입장에서 경험하는 세계영어의 고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지만, 통역중재 의사소통의 참여자인 청중의 시각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상기의 이유로 본고에서는 한국인의 세계영어 및 세계영어의 통역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다만,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이를 세계영어 및 통역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집단으로 범위를 좁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국제교류의 측면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직장인들은 취업과 승진에 필요한 이유로 끊임 없이 영어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업무를 위해 영문 자료를 접하거나 해외와의 교류를 하는 상황에 놓인다(Park 2011). 또한 국제 교류의 측면에서 민간 부문의 상업적인 업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외교 및 행정 차원의 공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역 상황(강수정 2015: 129; 박지영 2016)의 참여자가 된다. 또한 학업과 연계되어 학습과 국제교류의 기회가 열려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대학생은 대학교 교육에서 해외 연구와 이론을 습득하기 위하여 영어를 접하고 있고 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의 기회가 주어지며, 졸업 후 위의 다양한 기관들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예비 직장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인과 대학생, 두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성인의 세계영어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고 더 나아가 세계영어의 통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언어 태도

구어 의사소통은 텍스트적 정보 외에도 발음, 인토네이션, 속도, 강세 등의 풍부한 언어 정보를 동반한다. 원어민 영어 간에도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기에, 비원어민으로까지 영역이 확대되는 세계영어의 경우 종류별로 매우 폭넓은 정보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액센트와 같은 언어 정보는 사회적 맥락과 함의도 담고 있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의 경험과 배경에 따라 다양한 반응과 언어 태도(language attitude)를 촉발할 수 있다(Garrett 2010: 2; Giles and Sassoon 1983: 309-310; Ryan and Sebastian 1980: 231-232). 언어 태도는 “다양한 종류의 언어 및 해당 언어 사용자들을 평가하는 정서, 인지, 행동 지표”로 정의된다(Ryan, Giles and Sebastian 1982: 7). 언어 태도는 언어 행동 및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액센트가 있는 발화에 대하여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부정적 태도를 눈에 띄게 드러내거나 채용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액센트 화자는 불안 혹은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Hernandez 1993; Lippi-Green 2012: 151-156).

언어 태도는 표준언어 이데올로기(standard language ideology)의 영향을 종종 받는다. 표준언어 이데올로기란 오랜 표준화 과정을 거쳐 어휘, 문법, 음운 층위의 추상적 언어 규범의 틀이 구축된 선진국에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에 대한 생각으로 정의될 수 있다(Milroy 1999: 173-175). 그런데 지금과 같이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영어는 공용어화 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지역별 영어로 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표준언어 이데올로기는 이민자 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사용하는 영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결국 이는 다시 표준언어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표준적 언어를 사용하는 소수 인종 집단 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경우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해서 표준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Ryan, Giles and Sebastian 1982: 1). 이러한 사고방식이 공공정책에 반영이 되면, 그동안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비표준적 언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이러한 태도가 공공 영역에서 공공연히 드러나면 표준언어는 더욱더 높은 지위

를 획득하게 된다(St. Clair 1982: 167). 표준언어는 위상과 지위가 높은 언어로 간주된다(Paltridge and Giles 1984: 79-81; Ryan and Sebastian 1980: 231-232). 영어의 경우 소위 ‘원어민 영어’로 간주되는 지역 영어가 표준영어로 간주되며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다.

발음과 액센트도 언어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특히 ‘비원어민 영어’의 경우 발음과 액센트가 매우 특징적이다(Jenkins 2007: 78). 표준영어로 간주되는 원어민 영어의 경우 지위, 위상, 권력, 능력, 지성, 신뢰감 측면에서 비원어민 영어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Coupland and Bishop 2007: 80; Giles and Coupland 1991: 38). 질스(Giles 1970: 218-222)는 남부 웨일즈 지방 및 서남부 잉글랜드 지방의 중등학교 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지역별 영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영어로는 표준영어로 간주되는 ‘용인발음(Received Pronunciation, RP)’, 프랑스 영어, 아일랜드 영어, 남부 웨일즈 영어, 뉴잉글랜드 영어, 인디언 영어, 이태리 영어, 소머셋 영어, 북미영어, 코크니 영어, 버밍햄 영어, 독일영어 및 ‘Affected RP’ 등이 있다. 각 영어는 지위, 소통성, 심미성을 중심으로 평가되었는데, 질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원어민 영어 중에서도 표준언어로 간주되는 RP가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북미 영어와 프랑스 영어가 위상과 소통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 국가들이 다수 포진된 내부동심원 영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후이겐스와 보한(Huygens and Vaughan 1983: 212-213)의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인들은 다른 비원어민 발화자 대비 RP 발화자의 사회적 지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볼(Ball 1983: 174-177)의 연구에서는 호주인들이 비원어민 화자보다 RP 사용자들이 더 능력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RP 발화자들의 사회적 매력도가 낮게 평가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도 다수 발견된다(Garrett 2001: 627; Giles and Billings 2004: 195; Luhman 1990: 340-343; Stewart, Ryan and Giles 1985: 101-103 참고). 외부동심원과 확장동심원에서 실시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원어민과 비원어민 영어에 대한 태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고, 특히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일수록 비원어민 영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Fayer and Krasinski 1987: 323-324; Jenkins 2007: 89-90; Matsuda

2003: 492-493; Starks and Paltridge 1994: 73-76).

그러나 이와 같은 지위의 차이는 반드시 원어민 영어와 비원어민 영어 간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비원어민 영어는 다양한 종류의 세계영어를 포괄하기에 비원어민 영어 안에서도 그 종류에 따라 언어 태도의 차이가 다층적으로 존재한다. 젠킨스(Jenkins 2007: 156-166)는 12개의 확장동심원 국가 출신들을 대상으로 하여 여러 종류의 영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물론 비원어민 영어가 원어민 영어보다 정확성, 용인성, 친숙도 등 모든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비원어민 영어 중에서도 스웨덴영어, 독일영어 등 원어민 영어에 가까운 액센트를 띄는 영어일수록 일관성 있게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인도영어, 스페인영어, 중국영어, 브라질영어, 일본영어 등 액센트가 강한 비원어민 영어는 낮은 평가를 받아 비원어민 영어 간에도 편차를 보였다. 이는 액센트의 정도에 따라 언어 태도가 결정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Brennan and Brennan 1981: 215-217; Giles and Coupland 1991: 39; Ryan, Carranza, and Moffie 1977: 271-272).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에게 대한 부정적 태도는 일자리 문제와 결부되면 심각해진다. 아시아와 환태평양 지역 출신의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이 액센트로 인해 미국에서 채용 과정 혹은 일터에서 차별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Lippi-Green 1997: 151-156). 또한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은 주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eggie, Smith and Hodgins 1986: 136-139). 그런데 이민자들이 느끼는 차별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동화되고자 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사회의 일원으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Derwing 2003: 555-561). 이러한 차별의 경험으로 인하여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은 원어민 영어 화자처럼 들리게 하기 위하여 발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Trudgill 1974: 63).

이처럼 영어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평가는 집단적 언어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언어 내재적 정확도나 심미적 가치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Trudgill and Giles 1978: 180-186). 이는 질스, 부르히스, 데이비스(Giles, Bourhis, and Davies 1979: 593-594)의 연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청자들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종류의 영어를 들으면 해당 영어와 연계된 문화규범, 사회적 함의 등을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가 반영된 기준으로 심미성을 평가하지 않았고, 어느 지역 영어인지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비슷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연장선 상에서 트러드길과 질스(Trudgill and Giles 1978: 183-186)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두 연구자는 특정 지역의 영어를 듣고 어느 지역의 영어인지 정확하게 식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조사하고 식별의 정확성이 해당 영어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정확하게 식별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모두 응답자들은 자신이 들은 영어가 특정 지역의 영어라고 확신하고 답을 하여 해당 지역의 영어와 연계된 사회적 함의를 바탕으로 해당 영어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영어에 대한 언어, 심미, 위상에 관한 판단은 결국 사회적 가치 판단임을 시사한다.

2.2 언어 태도와 통역

지금까지는 영어만을 사용한 단일언어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언어 태도를 논하였다. 그러나 이문화간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세계 공용어화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더라도 여러 언어 사용자들이 참여함에 따라 통역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통역을 통한 세계영어 의사소통 상황과 언어 태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세계영어의 통역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연사의 엑센트가 통역 결과물 혹은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통역 고충, 발화자의 발음 명료도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온 반면(Albi-Mikasa 2010; Chang and Wu 2014; Huh 2017a/2017b; 허지운 2013a/2013b), 세계영어의 통역과 관련되어 세계영어에 대한 통역사 혹은 회의 참여자의 언어 태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비원어민 연사 발음의 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은 통역사에게는 분명히 고충이 된다. 전문 통역사들은 모든 메시지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통역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연사 발화의 일부분이라도 놓치게 되면 통역 품질이 그만큼 저하될 가능성이 발생한다(Kurz 2009; 허지운 2013a/2013b). 이러한 과정 속에서 통역 고충이 발생하면 연사의 발화에 대해 통역사가 부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은 다시 통역 결과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며 통역 청중이 내리는 통역에 대한 평가와 연사에 대한 평가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통역 청중의 평가는 통역과 연사에 공히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통역에게만 평가가 집중될 수 있

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비원어민 영어의 강한 액센트로 인해 통역 품질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부정적 평가와 불만이 통역사에게만 집중되는 것에 대해 통역사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Huh 2017b: 206). 반면, 긍정적인 영향을 논하는 연구도 있다. 라이트호퍼(Reithofer 2013)의 연구에 따르면 비원어민 연사의 발화를 영어로 직접 들은 집단과 영-독 통역을 통하여 청취한 집단의 발화 내용 이해도를 비교한 결과, 통역을 통하여 청취한 집단의 이해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창과 우(Chang and Wu 2014)는 청중은 비원어민 영어 발화에 대한 노출이 많은 통역사가 일반 청중보다 비원어민 영어를 더 잘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통역에 의지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상기와 같이 세계영어의 통역 및 통역사의 시각에 관한 연구가 최근 들어 촉발되고 있지만, 일반 회의 참여자가 세계영어와 세계영어의 통역에 대해 갖는 언어 태도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다루어보고자 한다.

2.3 언어 태도 측정

언어 태도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MGT(Matched Guise Technique)이다. 이는 간접적인 측정 방식으로, 한 명의 이중언어 화자가 같은 내용을 각기 다른 액센트로 녹음하고, 실험 참가자들은 이를 듣고 자신이 듣는 목소리가 모두 같은 한 사람의 것인지 모른 채 액센트가 다른 다수의 연사의 발화를 듣는 것으로 인지하고 평가를 하는 실험 방식이다. 연사마다 갖게 되는 개인적인 특성 차이 없이 목소리, 톤, 스타일 등의 변수를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MGT는 장점이 있다. MGT는 램버트, 호지슨, 가드너, 필렌바움(Lambert, Hodgson, Gardner and Fillenbaum 1960: 44-45)이 영어 및 프랑스어 구사자에 대한 청자의 태도를 조사하는 사회언어학 실험에서 처음 사용하며 알려졌다. 이후 이 방식은 언어 태도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었다(Giles 1970: 214-217 참고). MGT는 개별 청자의 언어 태도를 포착하기에 좋고 전세계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비교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직접 측정 방식보다 효과적이다(Garrett 2010: 57). 물론 MGT도 완벽하지는 못하다. 아무리 여러 액센트를 잘 구사한다 하더라도 한 명의 발화자가 여러 액센트를 흉내 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래의 액센트가 그대로 구현되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다(Garrett 2010: 58).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VGT(Verbal Guise Technique)이다. VGT 방식에 따르면, 한 명의 연사가 여러 액센트를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액센트를 구사하는 발화자가 자신의 액센트로 녹음을 하고, 청자는 그 음성 샘플을 듣고 발화 평가를 한다. 단, VGT에서는 여러 연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개별 음성 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Garrett 2010: 62). 그러나 한 사람이 상이한 액센트를 모두 완벽히 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이한 고유의 특성을 지닌 여러 종류의 영어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VGT가 매우 유용한 연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MGT와 VGT를 이용한 언어 태도 측정 시에는 청자들이 음성 샘플을 듣고 일련의 성격 특성(personality trait)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 램버트, 호지슨, 가드너, 필렌바움(Lambert, Hodgson, Gardner and Fillenbaum 1960: 44)은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외모, 리더쉽, 유머, 지성, 자신감, 친절, 야망, 사회성, 호감도 등 14개 성격 및 신체 특성을 측정하였다. 질스(Giles 1970: 215-216)는 심미, 소통, 지위를 중심으로 태도를 측정하였다. 호퍼와 윌리엄스(Hopper and Williams 1973: 298-299)는 능력, 호감도, 자신감, 영미권 화자와의 유사도의 네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몰락(Mulac 1975: 187-189)은 언어태도 측정 척도인 SDAS(Speech Dialect Attitudinal Scale)를 개발하여 지성, 심미, 역동성의 세 가지 구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한편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요인을 사용하여 측정을 함에 따라 다양한 MGT 및 VGT 연구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잔과 호퍼(Zahn and Hopper 1985: 116-119)는 표준 측정 도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우월성(superiority), 매력도(attractiveness), 역동성(dynamism)의 세 가지 요인을 사용한 SEI(Speech Evaluation Instrument)를 설계하였다. 첫 번째 요인인 우월성은 화자의 능력, 사회적 지위, 발화 능력에 대해 청자가 갖는 태도를 측정하고, 두 번째 요인인 매력도는 사회성, 결속력, 호감도, 심미성, 신뢰에 대한 태도, 그리고 세 번째 요인인 역동성은 활력 및 열정과 관련된 태도를 측정하였다. 잔과 호퍼의 조사도구인 SEI는 572명의 비교적 큰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요인 분석, 신뢰성, 타당성이 검증되었기에 언어 태도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담보하기에 적절한 도구로 판단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섯 종류의 지역 영어를 대상으로 언어 태도를 측정하였다. 다섯 개의 지역 영어는 미국영어(American English, AE), 인도영어(Indian English, IE), 베트남영어(Vietnamese English, VE), 프랑스영어(French English, FE), 중국영어(Chinese English, CE)이다. 미국영어는 내부동심원, 인도영어는 외부동심원, 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어는 확장동심원 영어에 해당한다. 확장동심원 영어는 전세계 다양한 지역에 걸쳐 존재하므로 서구지역 비영어권 영어 사용 지역인 유럽의 프랑스영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베트남영어, 그리고 인구와 정치경제적 영향면에서 최근 강력히 부상한 중국의 중국영어를 포함하였다.

조사도구로는 온라인 VGT를 사용하였다. 이는 앞 절에서 설명하였던 바, 본래 액센트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언어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각 지역영어의 음성샘플은 조지메이슨 대학교 와인버거(Weinberger 2015) 교수가 구축한 ‘스피치 액센트 아카이브(Speech Accent Archive)’의 공개 샘플¹⁾을 활용하였고 프랑스영어의 경우 다른 영어 샘플과 음질이 비슷한 음성 샘플을 찾기 어려워 한국에서 프랑스어 강의를 하는 두 명의 프랑스 원어민의 영어 발화를 새로 녹음하였다(Yook and Lindemann 2013 참고). 스피치 액센트 아카이브에는 다양한 지역의 화자들이 동일한 텍스트를 읽고 녹음한 후 이를 업로드를 하여 지역별 음성샘플이 다량 저장되어 있고, 출신지역, 성별 등 해당 화자의 기본 정보가 담겨 있어 비교분석에 활용 가능하다. 액센트 이외의 요소가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였다. 우선, 발화자 개인 화법이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각 지역 영

1) 와인버거(Weinberger 2015)의 샘플은 일반적인 영어 어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어두자음, 어말자음, 자음군, 모음 요소가 포함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음성샘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Please call Stella. Ask her to bring these things with her from the store: Six spoons of fresh snow peas, five thick slabs of blue cheese, and maybe a snack for her brother Bob. We also need a small plastic snake and a big toy frog for the kids. She can scoop these things into three red bags, and we will go meet her Wednesday at the train station.

어별로 두 명의 서로 다른 연사의 발화를 사용하였고 음성 샘플은 모두 남성 샘플만 이용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은 각 지역영어별로 언어 태도 측정 문항, 식별 정확도 측정 문항, 세계영어 통역에 대한 태도 측정 문항을 배치하였고, 설문조사 도구 마지막에 인적사항을 묻는 문항을 배치하였다. 우선 언어 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잔과 호퍼(Zahn and Hopper 1985)의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위상, 매력도, 역동성의 세 요인으로 구분되는 총 30개 문항의 7점 의미변별척도 (semantic differential scale)를 이용하여 언어태도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3에서 3 사이의 7점 척도). 요인별 문항 구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잔과 호퍼 (1985)의 정리를 기초로 하여 위상, 매력도, 역동성의 세 요인을 사용한 것은 잔과 호퍼가 기존의 수많은 언어태도 측정도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요인들을 총망라하여 주성분분석을 하여 뚜렷이 구분되는 세 요인을 도출하였고,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분류이기 때문이다. 언어태도 측정 문항에 이어 해당 영어가 어느 지역 영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식별 정확도 측정 문항을 배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해당 영어에 대한 통역 필요 여부 및 그 이유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여 세계영어 통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표 1> 세계영어에 대한 언어태도 설문도구 측정항목

요인	측정 항목
위상	읽고 쓰는 능력, 교육수준, 사회계층, 재산, 지성, 전문직, 명쾌함, 완벽함, 유창성, 체계성, 능숙도, 사회·경제적 수혜 여부
매력도	다정함, 괜찮음, 온화함, 친절함, 따뜻함, 친근함, 호감, 상냥함, 사려 깊음, 좋음, 정직함
역동성	능동성, 사교성, 공격성, 적극성, 강인함, 자신감, 활동성

설문조사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서베이기즈모(www.surveygizmo.com)를 이용하였다.2) 설문 참가자들은 미국영어, 인도영어, 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 각 한 개씩, 총 다섯 개의 음성 샘플을 하나씩 듣고 해당 영어에 대한 설문 문항에 응답하였다. 다섯 개의 지역별 영어 음성샘플 재생 순서는 무작위

2) 서베이기즈모는 설문 항목 중 음성파일을 삽입하여 응답자가 재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설문 문항 무작위 배열 기능도 제공한다.

로 배정되었고 모든 음성샘플마다 동일한 설문문항이 반복되었다. 발화자 개인 스타일이 지나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역영어별로 서로 다른 두 명의 발화자의 음성샘플을 녹음하였는데, 두 개의 음성샘플을 모두 들으면 실험 참가자의 피로도가 높아져 후반부에 청취하는 음성샘플에 대한 측정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두 개의 음성샘플 중 한 개씩만 들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다섯 개의 지역별 영어에 대한 각 두 개의 음성샘플을 고르게 조합하기 위하여 총 32개의 조합을 구성하였다. 설문 참가자들에게는 각 조합에 해당하는 온라인 링크가 발송되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 프로그램 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총 144명에게 배포되었으며 그 중 국내 직장인 53명과 대학생 57명, 총 110명이 본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하여 설문응답률은 76.4%였다. 모든 참가자의 모국어는 한국어이고, 참가자의 연령은 20세에서 49세 사이이다.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참가자가 48.2%, 해외 거주 경험이 없는 참가자는 51.8%로, 큰 차이가 없었고,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대다수(84.9%)가 1-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온라인 설문조사는 2017년 2월 한 달 간 실시되었다.

4. 연구 결과

4장에서는 통계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정량적 분석을 하고 이어 5장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통계분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30개 문항 척도의 각 요인별 크론바흐 알파(Cronbach's alpha) 값은 위상의 경우 0.97, 매력도는 0.95-0.96, 역동성은 0.86-0.92로 요인별 높은 일관성을 보여 문항의 요인별 분류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1 평균

본고에서 조사한 다섯 개 영어별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평균 값은 <표 2>와 같다. 전반적으로 원어민 영어에 해당하는 미국영어(AE)와 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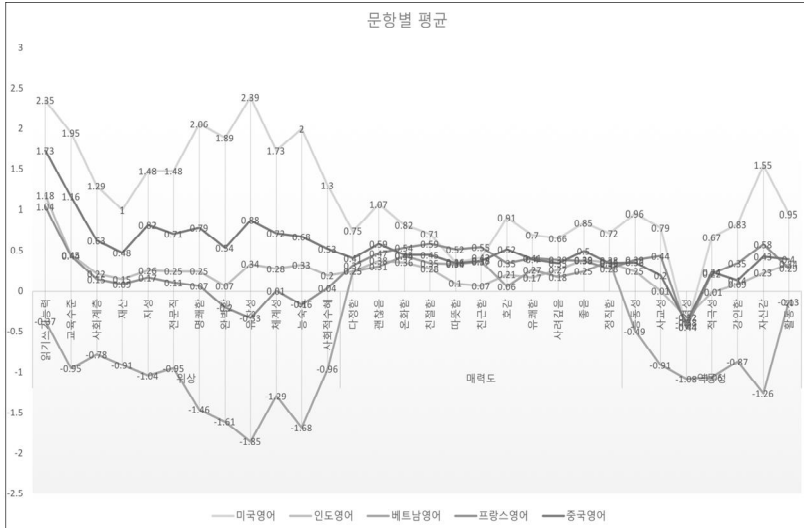
어민 영어에 해당하는 나머지 네 개의 영어(IE, VE, FE, CE)의 평균값은 위상, 매력도, 역동성의 세 개 요인 모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국영어는 모든 요인에서 다섯 개 영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특히 위상 요인은 1.74로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에 반해 베트남어는 위상과 역동성의 두 개 요인에서 마이너스 영역의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으로 응답자들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았다. 베트남어의 두 개 요인 응답 결과를 제외하면 원어민 영어와 비원어민 영어는 절대값으로 양의 값에 해당하는 응답을 얻어 전반적인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표 2〉 세계영어 별 언어 태도 응답 평균(표준편차)

영어 종류	위상	매력도	역동성
미국영어	1.74 (0.77)	0.72 (1.00)	0.76 (0.72)
인도영어	0.33 (1.05)	0.26 (0.71)	0.08 (0.85)
베트남어	-1.14 (0.82)	0.29 (0.67)	-0.83 (0.79)
프랑스어	0.12 (1.02)	0.44 (0.93)	0.26 (0.79)
중국어	0.81 (0.83)	0.43 (0.79)	0.20 (0.83)

구체적으로 문항별 평가를 보면 미국영어는 위상 요인 중에서 유창성(2.39), 읽기쓰기능력(2.35), 명쾌함(2.06), 능숙도(2.00), 교육수준(1.95) 항목의 평균이 눈에 띄게 높았고, 역동성 요인에서는 자신감(1.55)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높은 평균을 기록하였다. 반면, 베트남어는 미국영어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 위상 요인은 모든 항목이 부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유창성(-1.85), 능숙도(-1.68)가 유독 낮은 평균을 기록하였고, 역동성 요인도 모든 항목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가운데, 자신감(-1.26)이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전체응답자 개별 문항 평균



4.2 차이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인 직장인과 대학생 집단 간에 응답 평균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세 요인 모두에서 두 집단 간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표 3> 고조). 이에 국제교류의 다양한 상황에 노출되는 현 직장인 집단과 미래의 국제교류의 주역이 될 대학생 집단 간에는 뚜렷한 언어 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직장인과 대학생 집단 간 t검정 결과(t, p-value)

영어 종류	위상	매력도	역동성
미국영어	-0.58, 0.5626>0.05	0.70, 0.4872>0.05	-1.78, 0.07843>0.05
인도영어	-1.79, 0.07699>0.05	-0.15, 0.8798>0.05	-1.00, 0.3211>0.05
베트남영어	-0.98, 0.3291>0.05	1.64, 0.1034>0.05	0.77, 0.4434>0.05
프랑스영어	-1.79, 0.07678>0.05	-1.58, 0.1168>0.05	1.14, 0.2554>0.05
중국영어	-1.03, 0.3038>0.05	0.55, 0.5821>0.05	-1.05, 0.2958>0.05

이번에는 전체 응답자가 갖는 언어 태도가 각 영어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위상, 매력도, 역동성의 세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표 4> 참조). 전체 그룹 내에서 의미변별척도 값의 평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 유의수준 5%에서 영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2e-16$). 이어 각 지역 영어 간 차이에 대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영어를 다른 네 개의 지역영어와 일대일로 비교가 가능하게끔 영어쌍 조합을 구성하였고, 각 영어쌍 별로 Tukey 검정을 통한 다중 비교를 실시한 결과 위상과 역동성 요인에서 미국영어가 인도영어, 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 대비 각각 높은 평가를 받으며 뚜렷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반면 매력도에서는 미국영어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인도영어 및 베트남영어를 대해서만 차이를 보였고 중국영어와 프랑스영어와는 매력도 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비원어민 영어 쌍의 경우 복잡한 양상이 펼쳐졌다. 위상 면에서는 중국영어가 다른 비원어민 영어에 비하여 높은 평가를 받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베트남영어는 부정 영역에 해당하는 매우 낮은 평가를 받으며 다른 비원어민 영어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베트남영어는 역동성 면에서도 다른 비원어민 영어에 비하여 부정 영역의 낮은 평가를 받아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영어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매력도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비원어민 영어 쌍이 없었다.

<표 4>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영어 쌍의 Tukey 검정 결과³⁾

요인	원어민/비원어민영어	영어쌍	추정값 (신뢰구간)
위상	원어민 영어 - 비원어민 영어	VE-AE	-36.00 (-41.71, -30.29)
		AE-CE	15.17 (9.47, 20.88)
		AE-FE	26.09 (20.39, 31.80)
		AE-IE	24.17 (18.47, 29.88)
	비원어민 영어 - 비원어민 영어	FE-CE	-10.92 (-16.62, -5.21)
		IE-CE	-9.00 (-14.71, -3.29)
		VE-CE	-20.83 (-26.53, -15.12)

3) Tukey 검정에서는 구간 범위가 0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VE-FE	-9.91 (-15.61, -4.20)
		VE-IE	-11.83 (-17.53, -6.12)
매력도	원어민 영어 - 비원어민 영어	AE-IE	7.05 (2.64, 11.46)
		VE-AE	-5.55 (-9.96, -1.14)
역동성	원어민 영어 - 비원어민 영어	VE-AE	-12.41 (-15.55, -9.27)
		AE-CE	5.98 (2.84, 9.12)
		AE-FE	4.60 (1.46, 7.74)
	비원어민 영어 - 비원어민 영어	AE-IE	6.24 (3.10, 9.38)
		VE-CE	-6.43 (-9.57, -3.29)
		VE-FE	-7.81 (-10.95, -4.67)
	VE-IE	-6.13 (-9.31, -3.03)	

4.3 식별의 정확성

지역 영어별 식별 정확성은 큰 차이를 보였다. 미국영어의 경우 96.4%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설문 참가자들이 정확하게 식별할 정도로 미국영어는 인지도가 높았다. 반면 비원어민 영어 중 가장 높은 식별 정확도를 보인 영어는 인도영어로 응답자의 40.9%가 정확하게 인지하였고, 나머지 비원어민 영어인 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의 식별 정확도는 17.3%에서 20.0% 사이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표 5> 참조).

<표 5> 응답자가 각 세계영어를 정확하게 식별한 비중 (n=110)

식별	미국영어	인도영어	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
	단위: % (응답자 수)				
정확	96.4% (106)	40.9% (45)	17.3% (19)	18.2% (20)	20.0% (22)
부정확	3.6% (4)	59.1% (65)	82.7% (91)	81.8% (90)	80.0% (88)

4.4 세계영어 통역의 필요성

다음으로, 각 지역별 영어의 발화자와 의사소통 시 통역이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6>과 같다. 다른 문항의 응답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데, 응답 결과가 원어민 영어와 비원어민 영어 간의 차이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미국영어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인 89.1%가 통역

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뒤를 중국영어(84.5%), 프랑스영어(73.6%), 인도영어(67.3%)가 이었다. 이 네 개의 영어에 해당하는 각각의 수치는 응답자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비중이다. 반면, 베트남영어의 경우 통역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31.8%에 불과했으며 절반이 넘는 55.5%가 통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관련된 논의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표 6〉 세계영어 별 통역 필요성 (n=110)

구분	미국영어	인도영어	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
	단위: % (응답자 수)				
필요	8.2% (9)	22.7% (25)	55.5% (61)	16.4% (18)	8.2% (9)
불필요	89.1% (98)	67.3% (74)	31.8% (35)	73.6% (81)	84.5% (93)
잘 모르겠음	2.7% (3)	10.0% (11)	12.7% (14)	10.0% (11)	7.3% (8)

〈표 7〉 해외체류경험 유무에 따른 집단 간 세계영어 통역 필요성 비교

해외체류 경험	구분	미국영어	인도영어	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
		단위: % (응답자 수)				
유(53)	필요	7.5% (4)	18.9% (10)	49.1% (26)	9.4% (5)	1.9% (1)
	불필요	92.5 (49)	71.7% (38)	39.6% (21)	83.0% (44)	92.5% (49)
	잘 모르겠음	0.0% (0)	9.4% (5)	11.3% (6)	7.5% (4)	5.7% (3)
무(57)	필요	7.0 % (4)	26.3% (15)	61.4% (35)	22.8% (13)	14.0% (8)
	불필요	87.7% (50)	63.2% (36)	24.6% (14)	64.9% (37)	77.2% (44)
	잘 모르겠음	5.3% (3)	10.5% (6)	14.0% (8)	12.3% (7)	8.8% (5)

한편, 해외체류경험 유무에 따른 각 영어별 통역 필요 여부를 분석한 결과 위의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미국영어를 제외한 네 개의 영어 모두 해외 체류 경험이 없는 집단이 체류 경험이 있는 집단보다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응답자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5. 논의

본고에서는 국내 직장인과 대학생의 세계영어에 대한 언어 태도를 위상, 매력도, 역동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세계영어의 통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참가자들의 언어 태도는 일률적이기보다는 언어 종류와 요인에 따라 다채로운 양상을 보였다. 5장에서는 4장에서 기술한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 응답자들의 언어 태도를 우선 요인별로 분석하고 이와 연계하여 세계영어의 통역에 대한 태도를 논하고자 한다.

5.1 위상

본고에서 대상으로 한 다섯 개의 영어의 위상 요인에 대한 문항 응답 평균은 원어인 영어인 미국영어와 비원어인 영어인 나머지 네 개의 영어(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 인도영어) 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내부동심원에 해당하는 원어인 영어인 미국영어는 위상뿐만 아니라 매력도와 역동성 요인에서도 다섯 개 영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위상 요인의 경우 더욱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평균 점수도 가장 높았지만 베트남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 인도영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국내 참가자들이 미국영어의 위상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비원어인 영어의 위상이 미국영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나타난 원인은 응답자들이 추가로 기술한 의견에서 찾을 수 있었고, 이는 명료도, 유창성, 친숙도, 능력의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해볼 수 있으며, 이는 앞서 4.1절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개별 문항과 일관성을 보인다. 우선, 명료도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미국영어 화자의 발음과 인토네이션이 정확하고 명확해서 이해하기가 쉬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유창성 면에서도 미국영어 화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응답자들의 대표적인 의견은 아래와 같다.

- (1) 발음이 정확함. (응답자 9)
- (2) 문장의 연결도 부드럽고 단어의 정확도도 높은 편인 것 같다. (응답자 19)
- (3) 말에 떨림이나 망설임 없이 발음이 굉장히 명쾌하고 억양도 적절하게 들

어가는 등 영어를 주 언어로 하는 원어민의 스피킹으로 판단됨. (응답자 25)

(4) 억양과 호흡에서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응답자 39)

명료하고 유창한 발음은 친숙도와도 연결이 되었다. 더 나아가 아래의 응답처럼 친숙도가 높은 미국영어는 표준영어라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미국영어는 구글번역기가 잘 인식할 것 같다는 의견이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5) 스탠다드 악센트 방송국 앵커 비슷한 느낌이었다. (응답자 10)

(6) 늘 익숙하게 들던 발음이다. (응답자 11)

(7) 우리가 영어 하면 생각나는 가장 스탠다드한 발음이다. (응답자 37)

(8) 전형적인 ‘리스닝’ 시험에 나올 법한 목소리와 발음, 인토네이션이었다. 그렇기에 친근감도 들었고, 유창하고 자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응답자 50)

(9) 매우 익숙한 발음이며 이 정도면 구글번역기가 잘 체크해 줄 것으로 판단됨. (응답자 58)

응답자들의 인식에서도 드러났지만, 미국영어는 다른 내부동심원 영어인 영국어나 호주어에 비해서도 한국인에게 익숙한 영어이다. 이는 한미 간에 오랜 기간에 걸쳐 쌓은 긴밀한 정치·경제적 관계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Ahn 2011: 699). 이러한 배경 때문에 학창시절 교육 및 각종 영어시험과 주류 방송을 통해 미국어에 많이 노출되어온 응답자들은 미국어에 더 익숙해졌기에 미국어를 더 명료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자들이 미국어에 매우 익숙하다는 것은 96.4%에 달하는 높은 식별 정확도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같은 태도는 다시 미국어의 표준어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적인 명료도, 유창성, 친숙도와 더불어 응답자들은 미국어 화자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응답자들은 미국어 화자가 화이트칼라 사무직,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 일을 잘 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 사회경제적으로 혜택 받은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발화의 명료도, 유창성, 친숙도가 미국어의 표준어로서의 위상을 강화함에 따라 소위 ‘표준어’를 잘 구사하는 화자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도 긍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언어 태도는 비원어민 영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4장의 통계분석 결과에서 확인한 바, 네 개의 비원어민 영어(베트남어, 프랑스어, 중국어, 인도어)가 각각 위상 요인의 평균 점수에서 미국영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비원어민 영어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영어쌍이 없어 국내 참가자들의 인식에는 미국영어만이 확고하게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네 개의 비원어민 영어 중에는 중국어가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명료도가 가장 큰 역할을 했음을 응답자들의 의견 분석 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어 고유의 특징이 음성샘플에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은 중국어가 비교적 명료한 것으로 보았다. 원어민만큼 발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장 단위로는 대체로 이해하기에 무리가 없고 아시아계열의 어느 정도 익숙한 발음인 것 같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반면 베트남어는 위상 요인에서 가장 낮은 평균점수를 받았는데, 역시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명료도가 가장 주된 이유로 판단되었다. 아래의 응답에서 보듯, 응답자들은 베트남어의 명료도, 유창성, 친숙도가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었다. 물론, 그럼에도 이해는 가능하다는 다소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발음 자체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 (10) 특유의 억양이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응답자 14)
- (11) 문장이 들리지 않고 몇몇 단어만 들을 수 있었다. 내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응답자 18)
- (12) 매끄러움의 정도가 너무 떨어져 이해하기 어려웠음. (응답자 25)
- (13) 영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목소리 톤이나 속도, 발음 등이 완전하지 않다. (응답자 49)

명료도와 유창성의 저하는 베트남어 화자에 대한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들은 베트남어 화자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의견과 더불어 화자의 교육수준이 낮을 것으로 추정하거나 직업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지위가 떨어지는 직업인 노동자, 택시기사 등을 언급하였다. 응답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베트남어의 발음과 인토네이션이 가장 익숙한 영어인 미국영어와 동떨어진 관계로 발음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인토네이션이 미국영

어와 다른 것을 ‘다름’이 아닌 ‘틀림’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동일한 텍스트를 읽었음에도 발음과 인토네이션의 차이로 인하여 응답자들은 해당 베트남어 발화자가 영어 실력이 떨어진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가 낮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이 ‘부정확’하다는 인식은 베트남어에 익숙하지 않은 데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베트남어의 식별 정확도는 17.3%에 그쳤다. 대략 동남아시아권 화자라고 추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액센트가 강하고 익숙지 않아 베트남과 전혀 무관한 지역의 영어 화자라고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역도 다양하게 언급되었는데, 동남아시아와 가까운 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또는 중동국가들이 언급되거나, 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도 언급되었고 더 멀리 나가 남미국가와 유럽, 러시아,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인 일본, 중국, 대만도 언급되었다. 이는 그만큼 응답자들이 아는 영어 종류가 적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미국영어 외의 다양한 세계어에 대한 친숙도가 떨어지는 경우 해당 영어의 특징을 알지 못하여 ‘다름’을 ‘틀림’으로 생각하기 쉽다. 또한 미국영어가 표준영어라는 생각에 따라 미국영어 이외의 영어를 구사하는 발화자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5.2 매력도

앞 절에서 비원어민 영어인 중국영어, 프랑스영어, 인도영어, 베트남영어가 미국영어 대비 위상 면에서 긍정적 인식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각 영어의 매력도에 대한 언어 태도를 보고자 하는데, 매력도 요인에서는 조사 대상인 비원어민 영어가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위상 요인의 분석 결과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였다.

평균 점수 상으로는 미국영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기는 했지만, 2위인 프랑스영어와 3위인 중국영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지 않아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물론 4, 5위를 차지한 베트남영어와 인도영어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두 영어가 국내 참가자들에게는 상대적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원어민 영어인 프랑스영어, 중국영어,

베트남어, 인도어 간에는 매력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 쌍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미국영어가 위상 면에서는 확연히 우월하고 뛰어난 영어로 인식되고 있지만, 매력도 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는 다시 위상이 높은 영어만이 매력적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프랑스어와 베트남어의 경우 위상 요인에서는 각각 4, 5위를 차지하며 최하위권을 이루었지만, 매력도 요인에서 프랑스어는 2위, 베트남어는 4위를 차지하였고, 평균점수도 위상 평균 점수에 비하여 프랑스어와 베트남어가 각각 0.32점, 1.43점이 높았다. 이는 위상 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영어의 고유한 특성이 다른 한편으로는 매력적인 특성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들의 추가 의견이 이를 뒷받침 한다. 아래의 응답자 의견 사례에도 나오듯, 참가자들은 비 원어민 영어 화자들이 친절하고 다정하며 친근한 느낌이 든다고 한 반면 미국영어 화자는 유창하고 능력 있고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인간미와 배려심이 없어 보이고, 무미건조하고 사무적이며, 성의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 (14) 미국영어: 발음이 명확하고 막힘없이 이야기했다. 상대방을 배려해줄 것 같은 느낌은 없음. (응답자 51)
- (15) 프랑스어: 악센트가 상대에게 어려울 것임을 아는 것인지, 음절을 잘 끊어서 발음해주는 모습이 사려 깊게 느껴짐. (응답자 96)
- (16) 베트남어: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발음에 묵음이 많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발음이며 익숙하지 않다. [그러나] 웬지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일 것 같다. (응답자 79)

이렇듯 특정 영어 고유의 특성으로 명료도와 유창성이 떨어지고 표준영어에서 벗어난다 해도 오히려 매력도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결국 국내 직장인 및 대학생 참가자들이 그만큼 다양한 영어에 대하여 열린 자세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5.3 역동성

역동성 요인에서도 미국영어가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로써

위상, 매력도, 역동성의 세 가지 요인 모두에서 미국영어는 다섯 가지 세계영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한국인 참가자들에게서 가장 선호되는 영어임을 보여주었다. 역동성 요인에서는 미국영어가 다른 네 개의 비원어민 영어와 각각 비교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월등히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았다. 비원어민 영어 간에는 일률적이지 않은 양상이 보였는데, 인도영어, 프랑스영어, 중국영어 간에는 통계적으로 역동성 점수 차이를 보이는 영어쌍이 없었으나, 베트남어는 각각의 비원어민 영어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가장 낮은 역동성 점수를 기록하였다. 이는 아래의 참가자 의견에서도 드러나듯, 베트남어어가 참가자들에게 명료하지 않은 언어로 인식되어서라고 볼 수 있다. 베트남어는 그 특성상 무성음으로 끝나는 어말자음을 유성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단음절어에 성조가 있는 베트남어 특성 때문에 베트남어 화자들은 영어 발화시 단어 내 한 음절에만 강세를 주기보다는 모든 음절에 강세를 두어 ‘스카카토’의 연속처럼 들리게 발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음절 단위 성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미에 들어가는 하강음조 등의 신호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발화자가 휴지를 두지 않는 이상 문장을 마쳤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 (Honey 1987: 238-241). 이러한 이유로 문장을 끝맺지 않았다거나 문장의 흐름이 끊기는 느낌을 청자에게 주어 영어 특유의 리듬과 인토네이션으로 살릴 수 있는 역동성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장의 흐름이 끊겨 발화가 비유창성을 띄게 되면 청자는 해당 발화자를 우유부단하고 자신감이 낮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Susca and Healey 2002: 149-151). 영어는 강세박자 언어로 억양과 강세를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지만 앞서 설명한 베트남어 특유의 영향을 받은 베트남어는 영어의 특성을 충분히 구현해내지 못한다. 이러한 배경지식이 없는 청자는 베트남어 발화를 해당 언어의 특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단순히 역동성이 떨어지는 발화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는 역동성과 관련된 베트남어에 대한 설문 응답자 의견이다.

- (17) 단어 하나하나의 전달에 신경 쓰는 것처럼 들린다. (응답자 24)
- (18) 발음을 끊어서 하고 단어를 명확하게 발음하지 않아서 알아듣기가 어렵다. (응답자 68)
- (19) 끊어읽기가 너무 잦아 누군가에게 말하는 문장, 대화라 느껴지지 않는다. (응답자 94)

5.4 세계영어의 통역

지금까지 다섯 종류의 세계영어에 대한 응답자들의 언어 태도를 분석하였다. 대부분 명료도, 유창성, 친숙도에 따라 해당 영어의 위상, 매력도, 역동성에 대해 다양한 언어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해당 화자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교육적 배경에 대한 추정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언어 태도가 세계영어의 통역과 연계될 때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각 영어별로 통역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명료도가 좋다고 인식한 영어일수록 통역 필요도는 낮게 나타났다. 미국영어의 경우 89.1%의 응답자가 미국영어 화자와 의사소통 시 통역이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대표적 이유는 역시 명료도였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4.5%가 미국영어 발음과 인토네이션의 명료도 때문에 통역사가 필요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에도 미국영어가 유창하고 익숙한 영어라는 점도 이유에 해당하였다. 비영어권 영어 중에서도 중국영어(84.5%), 프랑스영어(73.6%), 인도영어(67.3%)도 미국영어만큼 높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에 통역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언어 태도 문항에서 해당 영어 화자들이 액센트가 있다는 점을 응답자들이 언급하며 특히 위상과 역동성 요인의 경우 명료한 미국영어와 명료성이 떨어지는 비영어권 영어 간 태도 차이를 보였지만, 통역 필요성 면에서는 대부분의 비영어권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료도 저하를 감수하고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의사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영어권 발화 시 정확하게 모든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해도 개략적인 의미 이해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이 그 이유였다. 다만, 베트남영어의 경우 명료도, 유창성, 친숙도가 매우 떨어져서 개략적 의미 이해 자체가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통역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31.8%에 불과한 반면 통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절반이 넘는 55.5%에 달하였다. 명료도가 판단 기준이기는 하지만, 통역 필요성 면에서는 명료도가 심하게 저하될 때에만 통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된다. 참가자들은 영어에 액센트가 있어 불명료한 부분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의미 파악에 크게 무리가 없는 한 통역을 통하기보다는 직접 발화자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베트남영어를 제외한 세 종류의 비영어권 영어가 모두 매력도 면에

서 미국영어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을 보면 참가자들이 직접 의사소통을 하며 각 영어 고유의 특성을 접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영어와 같이 참가자들이 명료하다고 인식하는 영어도 통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발화 내용이 복잡해지고 발화속도가 빨라질 때, 보다 정확한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였다. 미국영어는 이처럼 유창성과 내용의 복잡성 같은 위상 요인과 관련된 이유로 통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비원어민 영어가 통역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는 거리가 멀었다. 비원어민 영어는 명료도가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엔 통역이 필요하지만 개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으면 통역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고유의 특징을 지닌 비원어민 영어라도 내용 면에서까지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는 결국 원어민 영어와 비원어민 영어 간 언어 태도 차이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청자가 비원어민 영어 화자의 발화 내용을 명료도 저하를 이유로 개략적으로만 이해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발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상당부분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의사소통 상의 비효율성을 낳는 것으로, 만약 실력을 갖춘 통역사가 중재하여 비원어민 영어를 통역한다면 명료도가 저하되는 비원어민 영어라 할지라도 발화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게 전달되어 보다 원활하고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역사도 비원어민 영어의 명료도 저하로 고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통역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참가자들이 통역사의 비원어민 영어 통역 고충이나 그로 인한 통역 품질 저하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창과 우(Chang and Wu 2014)의 연구결과에 나오듯, 통역 청중들은 비원어민 연사의 발음을 전문가인 통역사들이 더 잘 이해할 것이라는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다섯 가지의 세계영어의 위상, 매력도, 역동성에 대한 국내 직장인과 대학생의 언어 태도와 세계영어의 통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응답

자들은 위상, 매력도, 역동성의 세 가지 요인 모두에서 미국영어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위상 요인에서 미국영어가 가장 익숙하고 유창한 영어라는 평가를 받으며 표준영어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영어 화자를 유능하고 사회경제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화자로 생각하고 있는 등 미국영어를 우월한 영어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매력도 측면에서는 비영어권 영어인 중국영어와 프랑스어도 미국영어와 유의한 차이가 없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인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월하고 위상이 높은 영어가 아니더라도 각 영어 고유의 특성이 매력적인 요인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응답자들이 다양한 영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열린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언어 태도에는 명료성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 명료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인식된 베트남영어의 경우에는 위상과 역동성 모두 부정적 평가를 받았고, 매력도는 다른 요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역시 다섯 개의 영어 중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미국영어가 응답자들에게 친숙도가 매우 높은 영어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베트남영어는 응답자에게 친숙도가 떨어져 베트남영어 발음이 명료하게 인식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때문에 응답자들이 베트남 영어의 위상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베트남어 고유의 특성에 영향을 받은 단조로우면서 스타카토식으로 끊기는 인트네이션 때문에 역동성마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명료도가 일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자의 배경지식과 해당 영어에 대한 노출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자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구사하는 발화자는 본인의 의지와 능력과는 무관하게 부정적인 인식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세계영어의 통역에 관한 인식도 이와 같은 언어 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명료도가 언어 태도와 긴밀하고도 민감하게 연계된 것에 반해 통역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응답자의 명료도 충족 기준이 관대한 편이었다. 응답자들은 명료도가 매우 떨어지는 영어에 대해서만 통역을 필요로 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각 영어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접하며 해당 영어 사용자와 직접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개방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는 비영어권 영어는 대략적인 의미만을 파악하여도 충분하다

는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 때문에 비원어민 발화의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의사소통의 효과가 반감되는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통역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지만, 통역사 또한 비원어민 영어의 다양한 특성 때문에 청취와 이해 단계에서 고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사와 통역 청중 모두의 협조와 배려가 필요하다. 결국 직접 의사소통이든 통역이 중재하는 의사소통이든 다양한 세계영어 화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일반인과 통역사 모두 미국영어 일변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영어를 접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영어에 대한 친숙도가 높아질수록 해당 영어 화자의 발화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영어 화자와 그 발화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종류의 영어를 구사하는 화자의 발화의 경우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발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해당 영어와 화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어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세계영어의 모든 종류를 다루지 않았고 국내 일반 통역 청중의 모든 집단군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인식 및 태도를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VGT와 최신 온라인 설문도구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언어 태도를 측정하고 가능한 많은 참가자들을 모집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조사를 중심으로 언어 태도를 조명하였지만, 이면에 숨은 논의들을 끌어내기 위하여 정성적 조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연구가 토대가 되어 세계영어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개발을 위한 연구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수정 (2015) 「통번역산업의 시장구조와 특징에 관한 연구」, 『통역과 번역』 17(2): 113-133.
- 김근혜, 홍순옥, 탁장환 (2014) 「유아 영어교육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및 요구」, 『한국영유아보육학』 85: 97-116.

- 박지영 (2016)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고용 현황과 직무 분석 - 통번역 비전공자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5): 127-152.
- 조혜영 (2015) 「대학생들의 진로 및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영어 능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취업진로연구』 5(4): 29-56.
- 허지운 (2013a) 「세계영어 영한 동시통역 고충 - 인도영어 사례분석」, 『번역학연구』 14(2): 253-282.
- 허지운 (2013b) 「정보 구조에 기초한 중국영어의 영-한 동시통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17(2): 387-418.
- Ahn, Kyungja (2011) 'Conceptualisation of American English Native Speaker Norms: A Case Study of an English Language Classroom in South Korea',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4): 691-702.
- Albl-Mikasa, Michaela (2010) 'Global English and 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Implications for the Interpreting Profession', *Trans-kom* 32: 126-148.
- Ball, Peter (1983) 'Stereotypes of Anglo-Saxon and Non-Anglo-Saxon Accents: Some Exploratory Australian Studies with the Matched Guise Technique', *Language Sciences* 5(2): 163-183.
- Brennan, Eileen M. and John Stephen Brennan (1981) 'Accent Scaling and Language Attitudes: Reactions to Mexican American English speech', *Language and Speech* 24(3): 207-221.
- Chang, Chia-chien and Michelle Min-chia Wu (2014) 'Non-native English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Perspectives from Chinese-English Conference Interpreters in Taiwan', *Interpreting* 16(2): 169-190.
- Coupland, Nikolas and Hywel Bishop (2007) 'Ideologised Values for British Accent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11(1): 74-93.
- Derwing, Tracey (2003) 'What do ESL Students Say about Their Accents?',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59(4): 547-567.
- Fayer, Joan M. and Emily Krasinski (1987) 'Native and Nonnative Judgments of Intelligibility and Irritation', *Language Learning* 37(3): 313-326.
- Garrett, Peter (2001) 'Language Attitudes and Sociolinguistics', *Journal of*

Sociolinguistics 5(4): 626-631.

- Garrett, Peter (2010) *Attitudes to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iles, Howard (1970) 'Evaluative Reactions to Accents', *Educational Review* 22(3): 211-227.
- Giles, Howard and Andrew C. Billings (2004) 'Assessing Language Attitudes: Speaker Evaluation Studies' in Alan Davies and Catherine Elder (eds.) *The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 Malden, MA: Blackwell Pub, 187-209.
- Giles, Howard and Nikolas Coupland (1991) *Language: Contexts and Consequences*,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
- Giles, Howard and Caroline Sassoon (1983) 'The Effect of Speaker's Accent, Social Class Background and Message Style on British Listeners' Social Judgements', *Language & Communication* 3(3): 305-313.
- Giles, Howard, Richard Bourhis and Ann Davies (1979) 'Prestige Speech Styles: The Imposed Norm and Inherent Value Hypotheses' in William C. McCormack and Stephen Wurm (eds.) *Language and Society: Anthropological Issues*, Berlin/Boston: De Gruyter, 589-596.
- Hernandez, Raymond (1993) 'When an Accent Becomes an Issue: Immigrants Turn to Speech Classes to Reduce Sting of Bias', *The New York Times*, 2 March.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1993/03/02/nyregion/when-accent-becomes-issue-immigrants-turn-speech-classes-reduce-sting-bias.html>.
- Honey, Patrick J. (1987) 'Vietnamese Speakers', in Michael Swan and Bernard Smith (eds) *Learner English: A Teacher's Guide to Interference and Other Probl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8-251.
- Hopper, Robert and Frederick Williams (1973) 'Speech Characteristics and Employability', *Communications Monographs* 40(4): 296-302.
- Huh, Jiun (2017a) 'Phonological Consideration of World Englishes in Interpreter Training: Pedagogical Suggestions Based on an Experimental

- Study of Consecutive Interpretation', *The Interpreter and Translator Trainer* 11(1): 56-78.
- Huh, Jiun (2017b) 'Interpreting and World Englishes - Implications for Conference Interpreters in South Korea',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9(3): 187-216.
- Huygens, Ingrid and Graham M. Vaughan (1983) 'Language Attitudes, Ethnicity and Social Class in New Zealand', *Journal of Multilingual & Multicultural Development* 4(2-3): 207-223.
- Jenkins, Jennifer (2007) *English as a Lingua Franca: Attitude and Ident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Kachru, Braj, B. (1985)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in Randolph Quirk and Henry G. Widdowson (eds.) *English in the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30.
- Kurz, Ingrid (2009) 'The Impact of Non-native English on Students' Interpreting Performance', in Gyde Hansen, Andrew Chesterman and Heidrun Gerzymisch-Arbogast (eds.) *Efforts and Models i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Research: A Tribute to Daniel Gil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179-192.
- Lambert, Wallace E., Richard C. Hodgson, Robert C. Gardner, and Samuel Fillenbaum (1960) 'Evaluational Reactions to Spoken Languages',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0(1): 44-51.
- Lippi-Green, Rosina (2012) *English with an Accent: Language, Ideology, an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London/New York: Routledge.
- Luhman, Reid (1990) 'Appalachian English Stereotypes: Language Attitudes in Kentucky', *Language in Society* 19(3): 331-348.
- Matsuda, Aya (2003) 'The Ownership of English in Japanese Secondary Schools', *World Englishes* 22(4): 483-496.
- Milroy, Lesley (1999) 'Standard English and Language Ideology i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in Tony Bex and Richard J. Watts (eds.) *Standard*

- English: the Widening Debate*, London/New York: Routledge, 173-206.
- Mulac, Anthony (1975) 'Evaluation of the Speech Dialect Attitudinal Scale', *Communications Monographs* 42(3): 184-189.
- Park, Joseph Sung-Yul (2011) 'The Promise of English: Linguistic Capital and the Neoliberal Worker in the South Korean Job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14(4): 443-455.
- Paltridge, John and Howard Giles (1984) 'Attitudes Towards Speakers of Regional Accents of French: Effects of Regionality, Age and Sex of Listeners', *Linguistische Berichte* 90: 71-85.
- Reithofer, Karin (2013) 'Comparing Modes of Communication: The Effect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vs. Interpreting', *Interpreting* 15(1): 48-73.
- Ryan, Ellen Bouchard and Richard J. Sebastian (1980) 'The Effects of Speech Style and Social Class Background on Social Judgements of Speakers',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3): 229-233.
- Ryan, Ellen Bouchard, Miguel A. Carranza and Robert W. Moffie (1977) 'Reactions Toward Varying Degrees of Accentedness in the Speech of Spanish-English Bilinguals', *Language and speech* 20(3): 267-273.
- Ryan, Ellen Bouchard, Howard Giles and Richard J. Sebastian (1982) 'An Integrative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Attitudes toward Language Variation', in Ellen Bouchard Ryan and Howard Giles (eds.) *Attitudes towards Language Variation: Social and Applied Contexts*, London: Edward Arnold, 1-19.
- Seggie, Ian, Nancy Smith and Patricia Hodgins (1986) 'Evaluations of Employment Suitability based on Accent Alone: An Australian Case Study', *Language Sciences* 8(2): 129-140.
- Starks, Donna and Brian Paltridge (1994) 'Varieties of English and the EFL Classroom: a New Zealand Study', *The TESOLANZ Journal* 2: 69-77.
- St Clair, Robert N. (1982) 'From Social History to Language Attitudes', in Ellen Bouchard Ryan and Howard Giles (eds.) *Attitudes Towards Language Variation: Social and Applied Contexts*, London: Edward

- Arnold, 164-174.
- Stewart, Mark A., Ellen Bouchard Ryan and Howard Giles (1985) 'Accent and Social Class Effects on Status and Solidarity Evalu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1): 98-105.
- Susca, Michael and E. Charles Healey (2002). 'Listener Perceptions along a Fluency-disfluency Continuum: A Phenome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Fluency Disorders* 27(2): 136-161.
- Trudgill, Peter (1974) *Sociolinguistics*, Harmondsworth: Penguin.
- Trudgill, Peter and Howard Giles (1978) 'Sociolinguistics and Linguistic Value Judgements: Correctness, Adequacy and Aesthetics', in Frank Coppieters and Didier L. Goyvaerts (eds.) *Func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Gent: Story-Scientia, 167-190.
- Weinberger, Steven (2015) *Speech Accent Archive*,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Available at <http://accent.gmu.edu/>.
- Yook, Cheongmin and Stephanie Lindemann (2013) 'The Role of Speaker Identification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Attitudes towards Five Varieties of English', *Journal of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Development* 34(3): 279-296.
- Zahn, Christopher J. and Robert Hopper (1985) 'Measuring Language Attitudes: The Speech Evaluation Instrument',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4(2): 113-123.

[Abstract]

Attitudes of Korean College Students and Office Workers on World Englishes and World Englishes Interpreting

Huh, Jiun
(Ewha Womans University)

English is used in many parts of the world in different varieties. For South Koreans, who are usually exposed to Inner Circle varieties such as American English through school education and mainstream media, English varieties other than Inner Circle varieties may sound unfamiliar to them and, thus, may trigger language attitudes different from those for Inner Circle varieties. In this study, language attitudes of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and office workers towards different varieties of world Englishes are explored through a web-based questionnaire using VGT. Attitudes towards world Englishes are further discussed on interpreter-mediated world Englishes speech as well, as English communications in South Korea are often mediated through interpreters in business meetings, seminars, and conferences. Language attitudes are discussed around three traits: superiority, attractiveness, and dynamism. American English was awarded the highest scores for all three traits, while Outer Circle and Expanding Circle varieties received mixed results. The clear preference of the participants for American English was mainly due to intelligibility and familiarity reasons.

▶ Key Words: World Englishes, Interpreting, Language Attitudes, VGT

▶ 주제어: 세계영어, 통역, 언어 태도, VGT

허지운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학과 조교수

huhjiun@ewha.ac.kr

관심분야: 세계영어, 순차통역, 동시통역, 언어 태도

논문투고일: 2018년 2월 2일

심사완료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3월 20일